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대도시의 부패 고독...어린이 눈으로 추상

우리의 말 꼭꼭 씹어 먹기

선달: 음력으로 한해의 맨 마지막 날을 선달그림이라고 합니다. 음력 12월을 '살이 드는 달'이라고 해서 선달이라고 하죠. 지금은 음력 1월 1일에 설을 쇠지만, 옛날에는 음력 12월 1일에 설을 쇠었다는군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그림이라고 하구요.

'결혼식 날씨는 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선달로 정했다.' '말굽 소리와 말 울음소리는 맵고 찬 선달 찬바람을 끓는다.' (박종화, <인진왜란>)

맞장구: 풍물놀이할 때 할 일이 마주서서 주거나 받거나 하며 치는 장구를 맞장구라고 합니다. 맞장구를 치려면 서로 호흡이 맞아야 틀리지 않고 잘 치겠지요. 그래서 남의 말에 동조하여 같은 말을 하거나 부추기는 것을 맞장구라고 합니다.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를 우듬지라고 하구요. 얼핏얼핏 고개를 들어 상수리나무의 우듬지 위로 뾰족이 모습을 내민 산정을 올려다보곤 하였다.(문순태, <다오르는 강>)

자리끼: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이예요.

'방 안에는 모기장이 쳐져 있었고 머리맡에는 아내가 늘 준비해 두던 자리끼도 없었다.' (김원일, 노을)

'어찌 일찍 일어나서 자리끼도 내오고 요강도 치우지 못하느냐.' (한설야, <탑>)

인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필제작 '말테의 수기'

<말테의 수기>를 읽고 고뇌하는 정신과 예술적 응시의 세계를 그려 나간 빈틈없는 묘사문장에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글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늘 필독서로 권하던 필제작 <말테의 수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민한 감성의 글이 매력적으로 읽히곤 하구요.

<말테의 수기>는 1902년 필제작 '로망 연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파리에 도착했는데 대도시의 암울함을 몸소 보고, 경험하면서 파리의 생활에 절망과 고독을 느끼게 되고 29세부터 쓰게 되어 6년 뒤인 1910년에 출간했습니다. 말테 라우리치 브리케란 소년을 소설의 주인공을 창조하였지만 '말테는 나의 정신적 위기에서 태어난 인물이다'라고 필제작 자신이 말했듯이 필제작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구요.

29세란 젊은 나이의 말테에게 죽음에 대한 관찰이 어려웠는지 주저하게 읽어보세요.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매우 잘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파리는 도시가 비록 프랑스의 대도시라고 해도 늘 음과 양이 공존하는 법이죠. 파리 안에서의 빈곤함. 필제작은 주로 주변 자연풍경이나 사물 등을 통한 묘사와 심리, 정신 표현 등을 말테의 수기에서 잘 표현해내고 있구요.

쓸쓸한 아파트의 밀실에서 고독한 밤을 지새우는 시인 말테는 그의 눈에 비치고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들을 기록해 간다. 그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행락병자, 일부의 모습, 빈사의 환자를 싣고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 등등이다. 험란한 대도시의 이면에서 숨은 빈곤과 부패와 고독이 집요하게 그의 눈을 사로잡는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이 도시로 모이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에게겐 도리어 여기서는

이 <말테의 수기>는 일단 소설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화려한 줄거리의 전개도 없으며 특이한 인물이나 사건의 설정도 없어요. 있는 것은 다만 보고 생각함으로써 서서히 응고하고 결실해 가는 시인의 자화상뿐 그것도 대상을 응시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묘사되어 가는 것이죠.

그는 대도시의 비참과 부패, 빈곤과 고독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말기적인 눈으로 그것을 응시하지요. 여기에서는 지시하고 응시하는 것이 그의 실존을 지탱하는 것이죠. 안일과 타성으로 둔화되고 마비된 바린 눈에는 무의미하게 비치는 물상이나 사람들의 영위도 그 본성을 드러내지요.

말테는 일상생활에서 안주하여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어른들의 호위를 알아차리는 민감한 어린이의 눈을 자기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추상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 현상 배후에 대한 무시, 비참이나 부패의 응시에는 생의 부정적인 측면을 투철하게 응시함으로써 생의 긍정적인 측면, 즉 사랑에의 접근이 지니져 있던 것이죠.

사랑에 대한 가능성이 낮게 깔려 있다고 해야 하겠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랑은 일상생활 속에서 둔화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들'의 '무상의 사랑'이라고 할 만한 초월적인 사랑이지요. 이 사랑의 성찰을 넘어선 말테의 영혼은 방랑자의 해석에서 보여주는 신으로부터의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예민한 감성의 글 매력적 글 쓰려는 친구들 필독서

모두가 죽어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대도시의 비참과 부패, 고독과 죽음의 그림자의 응시에서, 수기는 말테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으로 풀려진다.

수기의 제2부는 그가 독서에서 얻은 많은 '사랑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그들의 사랑은 고독한 인간끼리 고독을 지양하기 위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벌써 지상의 남성들에게는 수용할 능력이 없을 만큼 깊고 큰 사랑의 과잉이요 그 비극이다. 그리고 이 수기는 '방랑아', 즉 어디까지나 타인으로부터의 사랑을 거부하고 오로지 신의 사랑만을 구하려는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사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솔만 드시면 폭력적으로 변해요

저희 아빠는 술을 많이 드십니다. 문제는 술만 드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예요. 얼마도 저도 지쳤어요. 차라리 아빠가 없으면 좋겠어요. (ID:예민한중3)

미움 키우지 말고 진정으로 아껴주세요

주정뱅이 아빠를 둔 자녀들은 아빠를 보며 맹세를 합니다. 팔이러면 '난 커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거야'라고 하구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찌 사나 찾아가보면 주정뱅이 남편과 사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빠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게지요. 그래서 술 안 마시는 남성을 보면 낯설고, 내가 그런 과반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용기를 잃는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서 그 사람과 달라고 싶다면 '미움'으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 내 안의 그 모습을 싫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내 마음은 자꾸만 그 쪽으로 끌려갑니다. 이래서 일애(일애)라고 하고 윤회(輪廻)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놓아주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술 마시는 아빠 모습이 싫다면, 정말로 내가 아빠와 달라고 싶다면 미움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씩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얼굴을 그려봅니다. 잘 살펴보면 지금 얼굴이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신을 타일러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사람들은 너를 참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 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미웠던 아빠도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야 자기 스스로 술 안 마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서울 육천암 종교문화복지재단 운산 스님)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중등 팔각봉축등 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 특징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